

농림축산식품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지자체 시달 및 농가 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이하 실시요령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시달하고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13.5.31)하여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을 신설하고, 지붕 및 벽 재질에 비닐 및 천막에서 합성 수지(일명 썬라이트) 및 합성강판 1/2 이하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개정(14.3.24)을 통해 가축사육 거리제한 3년 유예, 축사폐쇄·사용중지 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하고 동 법 시행령 개정(15.3.24)을 통해 육계오리 축사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였다.

이외에도 한-호주,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단체 요구사항인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설치해야하는 방역(소독)시설에 대하여 건폐율 산정 시 제외하고, 불법축사의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경감 근거\*를 마련(건축법 개정, '15.8.11)하였으며,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 업체에 대한 3년간 벌칙 유예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의 핵심이라 지적되었던 축사와 축사간 연결, 축사 처마(비가림시설)

확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건폐율 제외 등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하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15.9.9~10.19)를 마쳤다.

아울러 시도별로 지자체 공무원,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및 축산농가 순회교육을 11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므로 '18.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 축사시설자금 필요 시 축사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도록 생산자단체, 농협 등에 대대적인 캠페인 등을 당부하였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 및 (재)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5),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의 현장 적용 유효성  
향상 방안 국제심포지엄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11월 12일(목)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동물용의약품의 현장 적용 유효성 향상 방안’을 주제로 동물용의약품구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대만 가축위생시험소의 이수해 박사, 북해도 지자체 가축방역과장 니시 히데키 박사 및 듀폰사(社)의 아시아지역 방역위생

총괄 책임자인 호프 왕 박사, 그리고 네덜란드 식품위생연구원의 린다 스토커 박사 등을 초빙하여, 대만의 구제역 백신 방역정책 및 백신 검정수행 체계, 북해도의 동절기 소독제의 사용 실례 및 동절기 최적의 질병확산 방지기술 소개, 그리고 유럽의 항생제 내성 감축정책 및 내성 모니터링 체계에 관해 각각 소개했다.

또한 검역본부에서는 윤선종 연구관이 국내 구제역백신 검정체계 및 개선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사용 현장의 전문가 및 동물약품제조업체등을 초빙하여 동물용의약품의 현장 유효성 향상 방안에 대한 심층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대만의 구제역 백신 정책 및 돼지에서의 검정체계에 대한 한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구제역 백신 검정기준 재설정·운영에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동절기에 효과 있는 부동액 사용 및 생석회 등의 적절한 소독약제의 선정과 사용 방법을 이용하여 농가 및 거점지에서의 차단방역 소독요령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새로운 동물약품 품질평가 기술 및 유효성 증진 방안 등을 소개하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위한 신제품의 개발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품질평가의 수행과 산업체의 품질관리 및 허가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통합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고시들을 통합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그 동안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각각 HACCP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심사 등의 사후관리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는 지난 11월 6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증제도 개선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고시 제정과 함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통합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주요내용은 ▲유사 식품·축산물 HACCP 중복 인증 및 중복 사후관리 개선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 등이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공정에서 추가로 식품 HACC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사후관리도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는다.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으로 세분화된 축산물가공업 평가표는 폐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평가표로 인증심사 평가표를 통일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식품과 축산물 HACCP을 통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별도 현장평가 없이 추가 HACCP

인증이 가능해져 중복 인증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축산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장비’를 개발했다.

폐사된 동물의 사체는 부패로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멸균처리 하되, 우선적으로 발생 농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사용하는 소규모 랜더링 방식이나 FRP통매립, 퇴비장 처리 방식은 작업 후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와 오염원을 신속히 치우기 힘든 점 등 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개발한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장치’는 동물 사체를 알칼리(KOH)용액과 열, 압력을 이용해 가수분해하고 액상 물질(아미노산 등)형태로 만드는 장비다.

가수분해 과정을 거치면 동물 사체에 있는 균이 완전히 죽는다. 특히, 고온·고압이 아닌 저온·저압에서도 안정적으로 멸균처리가 가능하다. 기존 방식(소각 6시간~8시간, 랜더링 4시간~6시

간)보다 빠른 2시간 안에 동물 사체뿐 아니라 병원체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

처리 과정 중 별도의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액체 상태의 처리 산물은 추가 처리 작업 없이 토양 개량제나 비료, 사료, 공업용 원료 등으로 바로 재활용할 수 있다.

소동물인 실험동물, 개, 고양이, 닭 사체부터 돼지, 소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을 처리할 수 있어 모든 동물 사육 농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장비를 특허 출원하고, 기술 이전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준철 양돈과장은 “이 장비는 선진국에서 권장하는 알칼리 가수분해 방식을 국산화한 것”이며, “동물 사체 발생 시 빠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농장 내 자체 처리할 수 있고, 가수분해 처리된 멸균 액상처리물은 토양 개량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농가의 동물 사체 처리 고충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 에너지화 기술’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산업화 방안을 찾기 위해 11월 12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 에너지화 기술’ 국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과 국내 가축분뇨 에너지화 전문가들이 참석해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화

기술, 바이오가스화 후 발효액 처리기술, 국내 가축분뇨 이용 에너지화 정책, 바이오가스화와 고회연료화 기술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녹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축산은 분뇨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회연료, 바이오 에너지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이용하면 환경오염 방지, 재생에너지 생산, 기후변화 대응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미국 전문가들이 △조류를 이용한 혐기소화액 처리기술 적용 사례(미국 농업연구청 월터 멀브리 박사) △미국의 가축분뇨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동향(메릴랜드대학교 스테파니 랜싱 박사)을 발표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추진 정책 방향(농림축산식품부 송태복 팀장) △가축분뇨이용 수열탄화 기술(고등기술연구원 김호 박사) △국내 가축분뇨 고회연료 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국립축산과학원 정광화 연구사)을 다루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축산환경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 전문가들과의 연구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가축분뇨 이용 에너지화 방안을 찾아 농업 부문 녹색성장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안전먹거리 정보 OneStop 서비스 ... FRESH사이트 선보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인증원)은 11월 20일(금)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데이터기반 축산물 안전먹거리 정보 서비스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갑윤 국회의장과 공동주최한 김준진 보건복지위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자혜 부회장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언론, 단체급식 관련 단체와 전문가, 업체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준진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산물 등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축산물 정보의 공개와 활용은 식품안전성 강화와 신뢰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부총장 겸 통신위원장은 서면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먹거리에 대한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불량식품을 걸러내는 사전예방체계 확립 및 정보접근의 편의성”이라며 “이번 심포

지엄을 통해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은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데이터의 활용 능력은 새로운 가치창출을 주도하는 핵심역량이 될 것”이라며 “국가 DB사업으로 축산물 안전먹거리의 인증체계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연계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 등 데이터와 ICT 활용을 통한 서비스 선도 분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개회사, 축사에 이어 건국대 이영환 교수를 좌장으로 5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실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일 사무관은 축산물 HACCP 발전방안으로 국내 현실에 부합되는 소규모·간소화 표준모델을 보급해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통합인증 확대와 5단계 차등관리에 의한 사후관리 강화, One-Strike Out제 등 인증취소 기준 강화 등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재홍 서기관은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LPSMS)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른 정보화 시스템인 이력관리시스템,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 구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ICT융합서비스팀 고윤석 팀장은 “국가DB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은 국가지식 자원의 보존과 산업적 활용의 균형을 맞춘 사업과 데이터 간 연계 및 서비스 개발을 고려한 융합형 데이터 구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은 “축산물 안전먹거리 정보의 목표점은 소비자중심의 축산정

책, 사업자·정부의 제공 정보의 정확성, 문제발생시 관련자의 책임지는 자세 등이 갖춰질 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박정일 대리는 “LOD 프레임워크인 FRESH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축산물 안전먹거리 관련 각종 정보가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된다”며 이를 통해 “HACCP 인증제품에 대한 탐색기능이 8.6배 향상되고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식품안전성 제고와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김진만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데이터기반 축산물 안전먹거리 정보 서비스는 정부3.0시대의 맞춤형 공공 서비스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찬 정보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인증원은 심포지엄 현장에 태블릿 PC를 설치하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HACCP안전먹거리 통합정보 FRESH(Food Report of Safety of HACCP) 사이트 시연과 함께 디자인 및 구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병행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HACCP에 기반한 축산 제품 및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수치화한 안전 축산물 먹거리 지표(FRESH INDEX)로 이는 소비자가 축산물 선택하시는데 위생안전성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한 것이다.

제공지표로는 HACCP유지기간, 실시상황평가표 HACCP 부분평가 점수, 위생관리부분 점수, 제조시설관리부분 점수, 행정처분이력을 점수화하여 전체 오각형의 면적이 넓을수록 위생수준이 좋다는 뜻이다.

한편 인증원은 이날 심포지엄에 제시된 패널들의



의견과 FRESH 사이트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를 검토한 후 추가로 보완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2015년 가축방역사 양성교육 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종)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세종시 소재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방역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방역 업무능력 향상” 및 “고객감동경영 실천”을 위한 “2015년 가축방역사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임경종 본부장은 양성교육을 통해 악성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청정화를 위한 예찰, 농가 홍보·교육을 위한 방역사의 역할 강화와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당부하였다.

금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에서 “가축방역정책”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해설”에 대한 교육과 사전예방 및 현장 중심의 방역조치를 위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의 “가축 질병 역학조사의 이해”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역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 ‘정부3.0 축산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설명회’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축산정보의 민간 이용과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선도를 위한 설명회를 11월 19일 축평원 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롯데쇼핑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제공범위 및 활용방안 등의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 방법에 대한 자문 등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부문의 이용 활성화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김관태 R&BD본부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축산정보의 생활밀착형 융·복합 앱 개발과 신규서비스 발굴 등 일자리 창출, 민간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4년 1월부터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http://www.data.go.kr))에서

OpenAPI 방식으로 서비스 개방을 실시했다. 지난 5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포털(data.mafra.go.kr)에서 데이터 세트(Data set) 방식으로 개방 서비스 항목을 추가 하는 등 축산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들이 손쉽게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농식품 관련 시설들이 완성되는 12월 중순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명사초청 강연, 오페스트라 공연 등 ABC(Agriculture Business Center) 그랜드 오픈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양재동 aT센터에 농식품  
비전전시관 오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11월 19일,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과 aT센터의 지하연결통로 벽면에 「aT 농식품 비전전시관」 오픈식을 가졌다.

aT에서는 작년 본사 나주 이전 등 농업 관련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고객 접점이 절실한 가운데 수도권 고객을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2월 aT 북카페 설치를 시작으로 농식품 비전전시관 오픈, aT 스마트 스튜디오 설치, 청년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등 농식품 분야에서 가장 우선되는 부분들을 보완해 가고 있다.

이번 농식품 비전전시관 오픈으로 농업의 역사·문화, 스마트팜, 빌딩농장, 미래식량, K-Food, 해외 식품수출 등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aT에서 추진 중인 「aT 스마트 스튜디오」는 그 동안 홍보에 애로가 많았던 생산 농어민과 농식품 중소기업들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제품사진, 동영상 콘텐츠 제작, 마케팅 활용 등 중소기업

### 농협중앙회

신시대지농업발전유한공사와  
가축분퇴비 중국수출 MOU 체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가 중국의 신시대지농업발전유한공사와 손잡고 가축분 퇴비를 중국에 수출한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이기수)와 신시대지농업발전유한공사(법정대표 심귀화(Xing Guohua))는 11월 20일(금)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MOU를 체결하고, 농협중앙회의 유기질비료(가축분 퇴비) 중국수출 사업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과 자회사가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최초로 중국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되었으며 중국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본 양해각서 체결이후 농협은 2016년 3월까지 가축분 퇴비 초도물량 1,000톤을 먼저 수출하고 향후 수출물량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수 농협축산경제대표회사는 “앞으로 가축분 퇴비뿐만 아니라 액비까지 수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농협 가축분퇴비의 우수성을 중국시장에 알리고 시장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